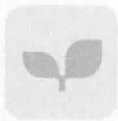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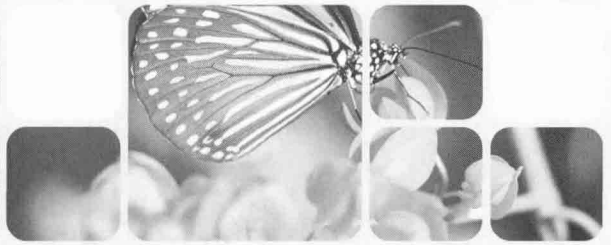


소

식

경

계



환경관리공단, 올해 환경개선자금 융자 797억원 확정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손주석)은 2008년도에 환경개선자금 등으로 총 797억원을 민간 사업자에게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 융자한다.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수도권대기환경개선자금' 및 '천연가스공급시설 설치자금'에서 797억원을 융자 지원하며, 현재 금리는 5.63~5.90%로서 변동금리이며, 대출기간은 최장 15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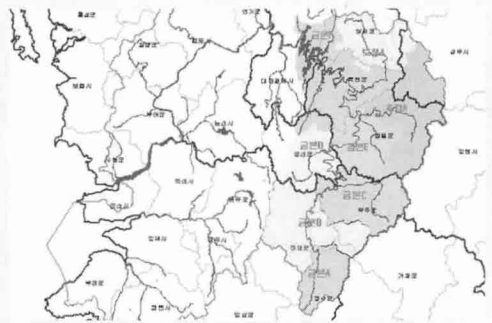
환경관리공단은 정부의 수도권대기환경개선 대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2006년부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자금을 별도 책정하여 융자지원하고 있는데 수도권대기관리권역내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시설을 설치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융자를 해주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시화·안산공단 등 수도권 지역에서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시에도 융자지원을 확대 시행키로 하였다.

이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주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감축하여 수도권의 대기환경을 2014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려는 정부 정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성공업지구 내에 입주한 기업체의 폐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에 대해서도 융자지원을 확대시행 함으로써 개성공단, 임진강 및 한강수계의 수질보전과 비무장지대 수생태계 보전 및 대기환경개선 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올해 환경개선자금에 대한 융자요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공단 융자지원팀(032-560-2235~8)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청호 상류, 2011년부터 총인 총량제 시행



광역시·도 경계 지점 현황도

지난 1월 23일 금강수계 4개 광역시·도 환경국장회의를 끝으로 2007년 5월부터 8개월간 지역사회와 협의해 온 제2단계 총량제 기간(2011~2015년) 동안 적용할 총인(T-P) 항목에



대해 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확정하였다.

오염총량제는 유역의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당해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양(허용총량)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광역 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은 환경부장관이 정하고, 1단계 총량제는 금강수계 32개 단위유역중 목표수질을 초과한 18개 단위유역에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시·군으로는 총 32개 시·군중 대전광역시 등 13개 시·군(목표수질 초과 단위유역에 일부만 걸친 시·군도 해당 유역은 시행)에서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총인(T-P)은 2005년 12월 30일, '금강 수계 관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단계 총량관리항목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이번 금강수계의 2단계 목표수질은 과거 3년간 평균수질보다 악화되지 않은 수준으로 설정한 1단계 때와는 달리, 기준지점 목표수질(장계교 0.026mg/l) 달성을 위한 기준수질 방식을 적용하였다.

2단계 목표수질 설정 시 대부분 시·도가 목표수질을 완화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지역간 이해 설득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에 따라 2008년 12월말까지 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만족하도록 시·도 관할구역내 단위유역에 대한 목표수질 설정공고 및 시·도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되며, 그간 시행된 1단계 총량제는 지역의 개발사업을 허용총량 범위내에서 허용하고, 개발사업의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오염물질 삭감방안을 강구하게 함에 따라 환경분야 기술개발 촉진의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폭 개선

산업자원부는 소비자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전문기업 간 A/S 소요비용의 분쟁을 사전에 투명하게 조율하기 위해 전문기업은 하자보증기간 중에는 성실하게 무상으로 하자보증을 실시해야 함을 명시했다.

무상 하자보증기간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소수력이 3년이며 지열은 5년, 기타 신·재생에너지설비는 3년이다.

또한 설치비 60% 이내로 지원하는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신축건물에 설치하는 경우는 사업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2년까지 확대하여 지원 희망 대상자들이 1년 이상의 여유를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이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의 지하주차장 출입구 지붕 등의 유휴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1월 21일부터 개정돼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산업자원부고시)」의 주요내용 이외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전문기업의 인증서 제출 의무화 ▲지열설비의 신뢰성 확보방안 강구 ▲A/S신고 처리대응 체계화 등의 내용도 추가했다.

금번 고시개정을 통해 200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책에 관심 있는 모든 고객들은 한층 더 공정하고 투명한 규정안에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사업 효율성, 신뢰성 및 만족도 등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 통합해양환경행정 시대 개막



해양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국가 차원의 해양환경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1월 20일부터 '해양환경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드디어 통합해양환경행정의 지평을 열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따라 생체 농축성·독성·장거리 이동성 및 유전성이 강한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하여 체계적 조사·연구를 통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해양환경자료에 대한 정도관리 및 분석능력 인증 제도를 도입해 국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해양환경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나아가 바다골재 채취 등 각종 해양이용행위가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이해당사자간 분쟁을 조정하는 '해역이용협의제도'를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해역이용영향평가제'를 실시해 무분별한 해양이용행위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1995년 7월 전남 여수 앞바다 시프린스호 기름 유출사고를 계기로 설립된 '해양오염방제조합'이 기름방제 업무 외에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개편돼 '민간전문종합기관'으로 육성된다.

이밖에 효율적 해양환경감시체제 마련을 위해 해수욕장, 연안해역, 폐수·하수종말처리장 등 해양오염 취약지역에서의 각종 오염물질 배출행위에 대한 사전점검을 위해 해양환경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지자체 및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도 추진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여가수요 변화에 맞추어 유원지 및 운동장내 설치가 가능한 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1월 1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금번에 공포되는 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그동안 유원지내 설치가능한 시설에서 제외되었던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을 주 5일제 등으로 인한 여가시간의 증가와 보건휴양에 대한 관심 확산 등 최근 변화된 국민의 여가수요에 맞게 설치가능한 시설로 허용하기로 하였다.

최근 자연휴양림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 등 보건휴양에 대한 관심을 적기 반영하여 보건휴양 서비스 증진 등 국민의 여가생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운동장에도 설치공간을 제한하지 않고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등 수익시설의 설치를 확대 허용하기로 하였다.(공연장 : 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 등, 집회장 : 예식장·회의장, 전시장 : 미술관·과학관·기념관)

수익시설의 확대허용은 운동장의 유휴공간을 적절히 활용하여 시민에게 문화공간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와 편익을 제공함은 물론 운동장 관리에 필요한 재정의 확충으로 운동장 적자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진입도로에 연결할 수 있는 도로에 시·군도를 추가하고, 체육시설의 진입도로 기준을 완화(폭 10m 이상 → 8m 이상)하여 불필요한 산림훼손 방지와 원활한 시설확충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건설교통부, '유원지에 자연휴양림, 수목원 설치 허용'

에너지관리공단, 2008년 신·재생 에너지 가이드북 발간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이기섭)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보의 교류활성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2008 신재생에너지 가이드북'을 제작·발간하였다.

개편된 '2008 신재생에너지 가이드북'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 및 보급지원제도 등 관련 제도 및 지원사업 소개, 신재생에너지 전문업체의 사업 및 제품 소개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원별 설비 설치사례 등을 싣고 있다.

본 가이드북은 국내 설비 위주의 설치사례를 칼라화보로 제작하여 정보에 생동감을 더했으며, 전국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홍보관 견학 코스를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아울러 산업체·학교·연구소, 공공기관 및 NGO 소속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들의 명단과 연락처를 함께 수록하여 가이드북의 활용도를 보다 높였다.

'2008 신재생에너지가이드북'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수요가 많은 설치의무화 대상기관과 교육기관, 신재생에너지 관련업체 등에 배포되어 활용되며,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를 통해 기후변화 협약과 고유가의 파고를 넘어 지속가능한 국가적 발전을 이루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환경기술진흥원, '2007 홍보백서' 출간

한국환경기술진흥원(원장 김영화)이 2007년



한 해 동안 거둔 홍보성과를 총망라한 '한국환경기술진흥원 2007 홍보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는 MBC특집 다큐 '환경이 경쟁력이다', 홍보대사 가수 이수영 위촉 등의 성과를 보인 '21C 환경기술홍보기획사업'을 포함해,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의 R&D사업과 기관고유추진사업의 성과를 담은 506건의 언론보도 등이 자세하게 실려 있다.

진흥원은 '2007 홍보백서'를 통해 차세대 사업 및 기관사업의 추진성과를 유관기관과 산학에 전달·배포함으로써 진흥원의 역할을 소개하고, 환경기술 R&D기관으로서의 위치를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의 김영화 원장은 이와 관련해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환경복지국가 구현을 목표로 환경기술 홍보를 통해 우수한 환경기술을 보급하고 확산하기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2007 홍보백서"를 통해 진흥원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환경기술과 관련된 알찬 정보를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진흥원은 환경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중추기관으로서, 환경기술 개발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힘쓰고 우수환경기술의 보급과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K)